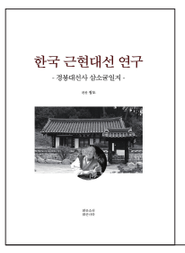
경봉 대선사 기록, 시대와 수행 경계 넘다



한국근현대 선연구
정도 스님 편찬
맑은소리 맑은나라
2만7000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1927년 겨울, 경봉 대선사는 통도사 극락선원 삼소굴에 입방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입적하기까지 67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수행과 일상을 기록했다. 그 방대한 기록이 〈삼소굴일지〉로 세상에 나왔고, 이제 〈한국근현대선연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복원돼 독자들을 만난다.

〈삼소굴일지〉는 수행자의 일기를 넘어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아우르는 시대의 증언이며, 한 선승의 내면세계와 사찰 공동체의 삶, 승가의 풍속까지도 섬세하게 담아낸 불교사적 사료이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근현대선연구〉는 바로 이 〈삼소굴일지〉를 현대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기록의 복원만은 아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흐름과 정신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한 연구이자 수행자의 언어로 엮은 한국불교사이며,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간 선사의 내면 수행을 집단지성으로 해석한 산물이다.

총 645쪽 분량으로 구성된 이 책은 1985년 초판을 기반으로 문체와 어투를 정비하고, 한자와 한글을 병기해 가독성을 높였다. 불교학계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고전 텍스트를 현대 독자와 연결하는 해석의 징검다리로 기능한다.

〈삼소굴일지〉 현대어 복원 〈한국근현대선연구〉로
동국대 선학과, 수행·역사 아우른 공동작업 결과물

〈한국근현대선연구〉의 편찬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의 2023년 2학기 전공 수업 '한국 근현대선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해당 수업에서 〈삼소굴일지〉를 주교재로 사용했고 수업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편집위원으로는 만경 스님, 선림 스님, 정인선, 한지예 등이, 발표자로는 공일 스님, 법정 스님, 혜노 스님을 비롯해 총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경봉 대선사는 통도사 주지와 불교전문강원 원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대중에게도 익숙한 '해우소(解憂所)'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적 수행을 삶의 태도와 언어로 풀어낸 그의 문장들은 깊은 철학과 선적 통찰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공부이자 수행으로 읽힌다.

정도 스님은 서문에서 "〈삼소굴일지〉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해방 등 격변의 시대 한 수행자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자 한국불교의 내력과 깊이를 보여 주는 거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근현대선연구〉는 단지 일지 복원에 그치지 않고, 수행의 언어로 시대를 해석한 사유의 총체이자, 후학들이 수행자의 기록을 오늘에 되살리는 공동의 학문 실천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삼소굴일지〉는 경봉 스님이 '삼소(三笑)'의 경지에 도달한 통도사 삼소굴에서 수행하며 남긴 깨달음의 기록이다. '삼소'란 염주를 찾아 헤매다 결국 목에 걸린 염주를 발견하고 허허 웃는 자각의 순간을 상징한다. 이 상징성 속에 자신의 자성을 떠나 밖에서 찾으려 했던 이가 끝내 자기 안에서 도를 구하는 여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선연구〉는 이 수행 일지를 바탕으로, 한 선승의 내면과 한국불교의 시대 흐름을 함께 조망한 작업이다. 학문과 수행, 기록과 해석의 경계를 넘으며, 고전 사료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시도이기도 하다. 매일의 수행이 축적된 이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살아 있는 텍스트로 남아 있다.

정도 스님은 경봉 큰스님의 증손자로 1975년 도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1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각사(통도사 양산전법회관) 주지, 조계종 교육부장, 한국선학회 제10대 회장 등을 지내고 현재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중앙도서관 관장,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도철학과 불교, 사유 접점 찾다



인도철학과 불교
방법, 명상, 행위
김호성 지음
여래 / 3만원

'정년' 앞둔 김호성 교수 10번째 책
학술서 미수록 논문 8편 담아
방법·명상·행위 세 주제로 구성

인도철학과 불교는 자기를 탐구하는 철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전통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며, 깨친 자들의 계보를 이어왔다. 동아시아 불교의 한문 불전에도 인도 불교의 범어 전통은 깊숙이 스며 있다. 〈우파니샤드〉는 신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가르치며, 선불교 역시 부처를 밖에서 구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인도철학과 불교, 두 사유의 접점은 어디에 있을까.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앞둔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이 질문을 평생의 화두로 삼아 열 번째 책 〈인도철학과 불교-방법, 명상, 행위〉를 펴냈다.

이 책은 인도철학과 불교를 함께 사유하는 '인불공학(印佛共學)'의 균형 잡힌 시선을 담아낸 논문집이다. 김 교수가 1997년 동국대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발표했으나 그동안 학술서에는 싣지 않은 논문 8편을 이번에 새롭게 정리해 엮었다.

책은 '방법', '명상', '행위'의 세 주제로 구성됐다. 1부 '방법'에서는 인도철학과 불교학의 공부 방법론, 독서법, 한문불전과 범어의 관계를 고찰한다. 동양적·전통적 공부방법론과 서양적·근대적 방법론의 차이를 연구하며, 힌두교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간디의 △실천적 독서법 △분석적 독서법 △선적 독서법이 불교의 텍스트 읽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범어의 완벽한 습득은 어렵지만 범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관점도 펼친다.

2부 '명상'에서는 〈우파니샤드〉와 선의 기원, 언어적 명상과 불립문자(不立文字), 선과 힌두교의 수행론을 탐구한다. 특히 '우파니샤드와 선의 기원'에서는 신을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한 〈우파니샤드〉와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한 선불교의 교육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함께 "구조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내용적으로 개변(改變)해 온 것이 불교"라며 선의 기원을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추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다.

'언어적 명상과 불립문자'에서는 명상이 곧 언어적 명상이자, 유식의 명상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또 언어가 언어를 낳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두에 의지하는 간화선이 나타났음에도, 언어는 선수행 안에서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선과 힌두교의 수행론'에서는 〈이입사행론〉을 통해 요가와 베단타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철학의 흔적을 살피면서 선불교가 인도불교의 명상전통을 흡수해 새로운 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는 화두를 던지기도 한다.

3부 '행위'에서는 '의례의 길과 수행의 길'을 통해 의례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조명한다. 저자는 의례만능의 상견(常見)과 의례부정의 단견(斷見)을 벗어나 "의례는 수행"이라는 중도적 입장을 강조한다.

배희정 객원기자

'법화경'의 시간·공간·정토 새 조명



법화경의 세계와 유토피아
장재진 지음
민족사 / 3만5000원

장재진 교수 다층적 분석 담아내
28품 고찰로 철학적·수리적 해석

불교는 철학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은 중생의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에는 시간과 공간을 각각 '겁(劫)'과 '시방(十方)', 그리고 '시방세계(十方世界)'로 드러낸다. 그러나 경전 속 시공간은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나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이러한 가운데 〈법화경〉에 담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살피고, 시공이 반영된 정토(淨土) 세계를 분석한 책이 최근 출간돼 주목된다. 장재진 동명대학교 미디어대학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법화경의 세계와 유토피아〉가 그것이다. 각각의 단일 주제 연구는 있었으나, 〈법화경〉에 묘사된 수기(授記)를 중심으로 시공간과 정토세계를 아우르는 선행연구는 드물어 주목된다.

이 책은 〈법화경〉 28품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경전에 함의된 세계의 구성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책은 시간의 표현인 '겁'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재의 시간으로, 공간 표현인 '시방'은 방위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특히 방향과 장소를 넘어 일체중생이 존재하는 세계이자,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시방세계'의 묘사도 살핀다.

이를 위해 저자는 〈법화경〉의 △시간과 수의 상징체계 △공간과 시방 △세계와 정토 등 6장으로 구성된 주제를 바탕으로 탐구한다. 방대한 시간 개념인 '겁'을 무한하고 모호한 '비유와 방편'으로 바라보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이를 산술적 계산으로 환산해 경전에 나타난 시간을 수치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석가여래가 이미 성불한 시간을 가리키는 '무량무변백천만억나유타아승기겁(無量無邊百千萬億那由他阿僧祇劫)'은 43.2 곱하기 10의 209승을 곱한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시방'을 공간의 분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장소로 이해한다. 또 '시방'은 붓다가 존재하는 전 우주를 가리키며, '시방세계'는 붓다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장소라며, 시방은 '추상적 무대'가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는 '실존적 공간'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책 후반부에서는 정토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한다. 정토는 추상적이거나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와 깊이 연결된 신성한 공간으로 바라본다.

또한 이러한 정토 사상을 서양의 유토피아 이념, 동양의 무릉도원, 유가의 대동사회와 비교하면서 불교가 내세 지향적 종교가 아니라 현실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실천적 철학임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바라보는 〈법화경〉의 이상세계는 고정되고 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끊임없이 열리고 유동적으로 변하는 가능성의 장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현실이다. 즉 다양한 비유와 방편으로 묘사된 시방은 궁극적으로 일체중생의 '일불승(一佛乘)'을 위한 것이라며 수행을 통해 누구나 이상세계를 현실로 나타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따라서 책을 읽다 보면, 〈법화경〉에서 묘사된 극락세계, 불국토, 불국정토는 정토와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희망의 세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법화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역동적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좋은 세상을 향한 추구는 〈법화경〉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여정이 될 것이며, 이 책이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희정 객원기자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最古)의 다경(茶經),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

수행자이자 다인(茶人)인
원학 스님의 해설로
차의 진면목을 만나다!

초의 선사의 『동다송』보다도 340여 년 앞서 차의 미덕을 예찬한 「다부」
그 속에 담긴 차향을 수행자의 삶에서 되살리다

「다부」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한재 이목이 차와의 인연, 차의 미덕 등, 차에 대한 의견을 써내려간 부(賦, 무언가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문체의 글)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는 차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우리 시대 최고의 다인(茶人)이라 할 수 있는 원학 스님이 「다부」를 옮기고 풀어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차분한 차향 속에 잊힌 정신성과 수행의 지혜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한재 이목 지음 | 삼이 원학 스님 번역·해설
224쪽 | 양장 |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